주가	환율	금리
+5.09	+0.04	-0.02
1,333.13 (코스피지수)	959.00원 (원/달러)	4.71%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2.45	(+3.81)
다우(12일)	11,498	(+0.89)
나스닥(12일)	2,216	(+1.96)
닛케이	15,719	(-0.48)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90엔	(-0.28)
유로 달러 환율	1.2686달러	(-0.23)
3년만기 회사채	5.04%	(-0.02)
콜금리	4.47%	(보합)

올 국내 쌀 생산량 작년보다 2.8% 감소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쌀 관측'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유실 등에 따라 벼 재배면적이 95만5천ha로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데다 단위당 생산량도 조생종을 중심으로 다소 떨어져 쌀 생산량이 463만t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8% 적은 수준이다. 작황 수준을 보여주는 단보(302.5평, 10a)당 생산량은 올해 485kg으로 지난해보다 2kg 감소할 것으로 이 연구원은 추정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조생종의 단보당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만생종은 아직 작황을 예상하기 힘들어 일단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전체 생산량을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8월 수출 광주⬇ 전남⬆

7월 비해 12.5% 감소 5.6% 증가

8월중 광주지역 수출은 6억2천300만달러로 전월보다 12.5% 감소했고, 전남은 19억4천400만달러로 5.6%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IC반도체(2억700만달러), 승용차(9천400만달러), 타이어(6천700만달러), 냉장고(6천700만달러) 등이 수출을 주도했으나, 환율하락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액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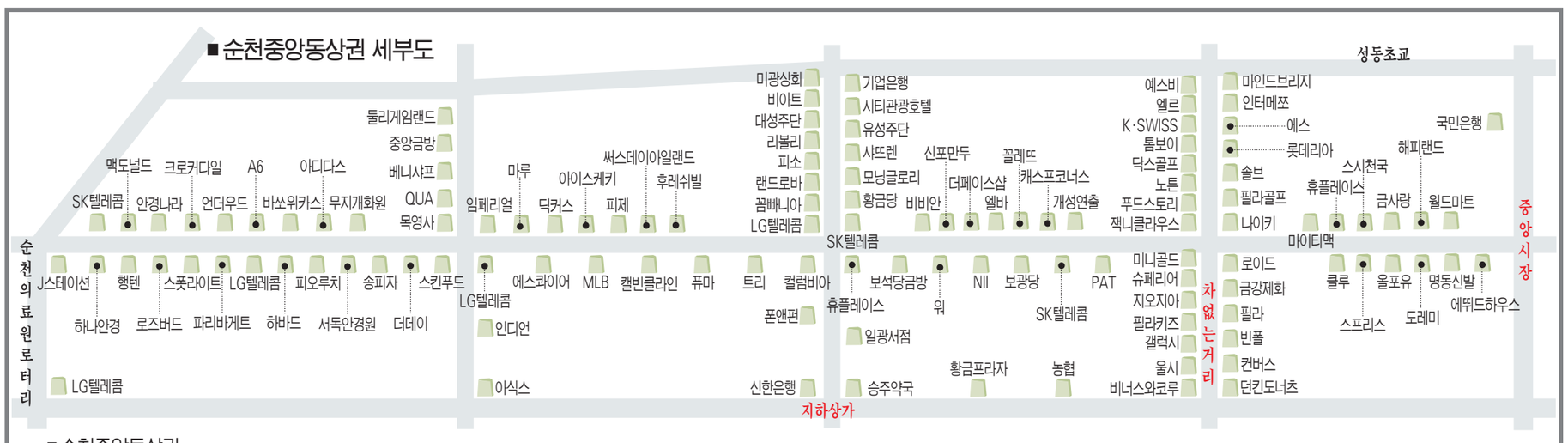
전남은 유기 및 무기화합물(3억500만달러), 철강판(2억3천700만달러), 인조 플라스틱 및 제품(2억5천300만달러) 등이 호조세를 이끌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전남상권 분석 5

27만명이 거주하는 순천지역 상권도 인구 20~30만명의 여느 중소도시 상권과 같이 구도심과 신도심 등 2개 상권으로 구분된다. 순천 구도심은 중앙동 상권과 시청상권으로 나뉘며 전체 구도심 상권의 면적은 14만2천여평이다. 이 가운데 2만8천여평에 불과한 중앙동 상권이 구도심의 중심 상권으로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순천중앙동상권 세부도



■순천중앙동상권

젊은 유동인구 바탕 '의류의 거리'로

신도심 인구 유출 10여년전부터 상권 위축
상가 임대료 평당 1천만~3천만원 편차 커

순천 중앙동상권

중앙동상권은 연향·금당·왕지지구 등 신도심 개발에 따른 인구이탈로 10여년전을 기점으로 상가 임대료가 하향세로 접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순천 최대의 상업중심지이자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순천의 대표 상권이라는 입지를 지키고 있다.

특히 상권 주변에 9개의 학교가 위치한 특성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의류가게와 이동통신 대리점이 밀집하는 등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주 고객으로 한 젊은이의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중앙동 상권**=순천의료원로터리와 중앙시장을 잇는 대로변에서 성동초등학교 사이 이면도로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로터리 입구 맥도널드에서 중앙시장에 이르는 긴 1자형 도로와 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3개의 가로축 도로가 만나 십자형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주 업종은 젊은층을 겨냥한 의류가게와 이동통신 대리점, 안경점, 패스트푸드점, 팬시점 등이다. 연향지구 등 신도심이 조성된 이후 아동의류 등이 빠져나가 요즘에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의류점이 특화되고 있다.

중심지 20평 가게 권리금만 1억

특히 차없는 거리인 '황금로'는 중앙동 상권의 핵심으로 일명 패션가로 불린다. 상가 임대료도 1층 기준으로 평당 2천~3천만원으로 20평 크기의 가게의 경우 권리금만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황금로를 벗어난 곳은 평당 임대료도 1천~1천500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중앙동 상권내에서도 유동인구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맥도널드에서 중앙시장에 이르는 1자형 도로는 황금로와 함께 중앙동 상권의 중심축을 이루다보니 의류점, 화장품점 등 중심상권에 분포하는 선매점(물건을 골라서 사는 가게)이 많고 가게의 업종 전환도 빠른 편이다. 이에반해 이면도로로 한 블록만 더 들어가도 점포의 밀집도가 떨어지고 가게 회전율도 낮다.

중앙동 상권의 특징은 의류의 거리로 특화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광주의 충장로·금남로 상권과 유사하지만 거리별로 특화된 충장로·금남로와 달리 한복집인 주단과 젊은층이 고객인 중저가 의류점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권분화가 덜된 곳이다. 또 대도시에서는 유행이 한물 간 스티거가게 등도 성황중으로 광주보다는 사업 아이템의 순환이 한 템포 늦은 것이 특징이다.

◇**시청상권**=순천시청을 중심으로 남교오거리와 장천사거리까지를 아우르는 구도심 상권이다. 구도심 상권의 특성상 배후인구보다는 관공서를 찾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예전에 비해 상권이 크게 위축돼 있다.

호황을 누리던 음식점들도 신도심 상권으로 많이 옮겨가 일부만 성업중이고 인쇄소, 건축사사무실, 지역 언론사 등 시청업무와 관련된 업소만 다수 포진해 있다. 다만 시청에서 남교오거리 사이에 최근 프리머스시네마가 개관해 젊은층과 가족단위 영화 관람객들을 끌어모으면서 음식점 등 주변 일부 상가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남교오거리에서 중앙시장쪽 대로변에는 병원과 금융기관 등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서 있고 시내버스의 환승지점이 많아 유동인구는 많지만 10~20대들은 인근 중앙동 상권으로 이동해 버려 대신 중·장년층 소비가 주를 이룬다.

시청사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향후 시청상권은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시청사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는 시청사의 이전보다는 주변 땅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장소와 면적을 확정하지 않아 상권 형성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곳 상권을 노리는 사람은 이런 점을 예측, 상권 접근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다음은 순천 연향·금당·왕지 상권입니다.

"수도권·지방 획일규제 탈피 부동산 시장 선별 규제해야"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분양권 전매제한등 폐지 요구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선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각종 부동산시장 규제를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도회는 이날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조기분양임대주택의 세제 개편 ▲기반시설부담금제 개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전면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비율 완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미분양 물량 적체 현상과 직결되는 만큼 지방의 전매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은 시장 점검을 통해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면 해제하는 한편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70%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김호남 회장은 "지방 건설업자들의 요구에도 불구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획일적 규제 기준 적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